

Awana Leader



순천제일교회 어와나 외계 김점순집사

어와나 클럽 활동을 통해 나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님께 받았다. 내 자신을 더욱 낮추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셨고, 내 자녀들이 어와나 클럽 활동을 통해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을 일으켜 아이들의 생각이 주님의 뜻을 쫓아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다.

우리 순천 제일교회가 어와나 클럽 활동을 시작한지 4년째 접어든다. 3년이라는 시간동안 아이들이 암송한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다. 세상적인 그 어떤 지식보다도 귀한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아이들은, 앞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곳곳이 견뎌내며 이겨낼 힘의 근원인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처한 상황에 따라 지금 암송했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이기에...

중등부 예배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큰딸과, 아바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아들, 그리고 앞으로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막내 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행복하다.

어와나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들'로 훈련시키시며 주님의 계획대로 이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 드립니다.

Geom-soon Kim in charge of accounting in Soonchon Jail Church AWANA

Through Awana clubs, I was given so many presents by the Lord. He not only taught me how to be low but also assured me he was walking together, helping me all the time. My children began to memorize the Word of God in Awana, which raised them up with God's Spirit. I can feel their mind is changed in God's will.

Soonchon Jail Church started Awana four years ago. It is thankful that our clubbers have memorized the Word of God for three years. The children who bear more precious messages than any other knowledge will be able to endure even if they were placed in adversity because the Word of God, the source of the force that raises them up, will be with them forever. I'm sure the Lord will make them call the Word memorized to mind and lead them to hope with the occasion.

I'm happy to see my daughter serving for the junior worship service, son praying for Daddy all the time and the youngest son hoping to be medical missionary.

I praise the Lord who nurtures his children for being approved workmen not ashamed and leads them to his plan.

Awana 명작 : 임오연 기자